

2024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비자(韓非子)는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전제하에, 유교의 인의(仁義)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는 공자(孔子)의 수준을, 백성들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평화로울 때는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국가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악행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에 맞는 현실적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한비자』이다.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 질서이자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고, 군주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비자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통치론을 펼쳤다. 한비자는 누구나 부, 고귀함, 장수 등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함,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어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므로 군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다수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비자는 군주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하였다. 그는 군주가 노자의 도 개념에 근거하여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명시적인 법,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군주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주는 신중해야 하고,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도 안 되며, 음약이나 유희에 탐닉해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나]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人倫)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를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군주가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우리’ 군주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잘 보좌하여 다스린다면 요순(堯舜)의 교화와 문경(文景)*의 통치를 손꼽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하 된 자들은 국가에 보답할 생각을 아니 하고 한갓 녹봉과 지위를 흠치며 군주의 총명을 가려서 아부하고 뜻만 맞추면서,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망한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라 한다. 안으로는 국가를 보좌할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벼슬아치만 득실거린다. 백성들의 마음은 날로 더욱 흐트러져 들어와서는 생업(生業)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방도가 없다. 학정(虐政)이 날로 심하여 원성(怨聲)이 그치지 아니하니,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어긋나고 무너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펼쳐지지 못하면 국가는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公卿), 아래로는 방백(方伯) 수령(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집을 윤택하게 할 계획에만 몰두하고,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여겨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되었다. 수많은 재화와 선물이 군주의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호주머니만 채워 국가의 빛이 쌓여만 가고 있다. 아무도 국가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고 방탕함에 거리낌이 없다. 온 나라가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들의 탐욕은 실로 그대로이니, 어찌 백성이 궁핍해지고 빈곤해지지 않겠는가.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근본이 쇠약해지면 국가도 쇠잔해진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방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고향에 저택을 화려하게 지어 오직 혼자만 온전할 방법을 찾으며 녹봉과 지위를 흠치니, 어찌 도리라 하겠는가.

‘우리’는 비록 초야(草野)의 유민(遺民)이지만 군주의 땅에서 먹고 군주가 준 옷을 입고 사니 어찌 국가의

위태로움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온 나라가 마음을 함께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내걸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 각자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모두 태평한 세월이 오기를 기원하며 함께 군주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 문경(文景): 어진 군주로 알려진 중국 한나라 문제(文帝)와 그 아들 경제(景帝).

** 사유(四維): 국가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예(禮)·의(義)·염(廉)·치(恥).

[다] 현대 철학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어떤 외부적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자유 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있다. 롤스는 그 대표적 학자로, '정의'에 대한 답론을 본격적으로 들고나와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롤스는 사상 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 제도의 제1의 덕목은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보았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고 할 때,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의하는 이른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환경, 계층적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원초적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 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게 된다.

[라] 그날 편반이 끝나고 키 크기에 따른 각자의 번호와 교실 좌석까지 다 정해졌을 때 새 담임이 된 김선생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66명이 운명을 함께 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높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 가지를 잘라 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높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써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새 담임선생은 과학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로써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 속의 1년이었던 것이다.

“고삐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삐를 당겨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손에 그 고삐를 쥐어 주는 일이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담임선생님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우리들을 묶고 있었다. 어느 연극잡지에서 완숙한 연출가는 배우 스스로가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중략)

“어떤가, 우리 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첫 만남에서 담임이 말한 우리들의 항해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역행 가치를 귀찮해 달라는 것일 게다. 나는 불현듯 담뱃불에 지짐질당해 아직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내 허벅지를 내보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어쩌면 담임도 내 입에서 기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1학년 때의 기표 담임이 기표가 1학년 때 한 번 유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길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중략)

담임선생은 우리집 방문을 끝내고 다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 말했다.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1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내 입에서 전해진 말이 요술을 부려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치미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여지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받았다. 나는 한낱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인계하는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었다.

[마] 세계는 신을 찬미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선택된 기독교인은 자신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해 신의 계명을 집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오로지 존재한다. 그러나 신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활동과 성취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신은 기독교인의 삶이 자신의 계명에 따라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목적에 이바지하기를 원한다. 칼뱅주의자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회적 노동은 어디까지나 “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노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현세적 삶에 이바지하는 직업노동도 역시 그러한 성격을 띤다. (중략) 생각건대 이 사회질서의 구성 및 편제는 놀라우리만큼 합목적적이며 성서의 계시나 우리의 타고난 직관에 비춰 보아도, 그것이 인류의 ‘유익함’에 봉사하도록 신에 의해 기획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비인격적인 사회적 실익에 기여하는 노동이야말로, 신의 영광을 더함으로써 신의 뜻을 따르는 행위로 생각될 수 있다.

[바]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간하며 사회 계약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하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였고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자기 보존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존을 도모하는 자유 의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이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이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하며 자연 상태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권의 양도가 자신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며 개인은 계약을 통해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회 계약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각자의 자연권을 결합하

여 이를 인위적 인격에 양도하게 된다. 이 모든 권력을 양도받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의 통치자를 주권자라고 하고 그가 가지는 절대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였다. 홉스는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절대 군주에게 독점되는 권한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 Aristotle conceived of democracy as a ruling partnership among relative equals. The ancient approach was to look for one, all-purpose epistemic* virtue for the political domain. We lack a word in our vocabulary that picks out a distinctive political expertise—a *techne*** for modern democracy. This is no accident. The model of an agency relationship gets its purchase from its ability to divide up cognitive labor—to permit knowledge specialization by political actors. You could spend all your life informing yourself about any given subdomain of the modern bureaucratic state. To avoid this overload, democratic citizens take out periodic loans. They transfer their decision-making authority to agents who bear their decisional costs, by contracting out some of their obligations. This drastically reduces the political reasoning that they must engage in on a daily basis. The freedom that in this form of agency offers should not be downplayed.

*epistemic: 인식론적인, **techne: (지식체계로서의) 기술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우리’의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30점]

2 제시문 [다]에 나타난 롤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학급’이라는 사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십시오. [30점]

3 (1)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인간관을 대비하십시오. [20점]

(2) 제시문 [사]를 요약하고, 권리 양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마]와 제시문 [사]를 비교하십시오. [20점]